



혜경스님의

### 경전읽기

법화경 ⑩약초유품 ⑪약초유

약초유품에는 쿠마라지바(摩羅什)가 번역한 <묘법화>에 누락되고 있는 비유가 있다. 해와 달의 비유(日月喻)와 작병자의 비유(作瓶者喻), 생맹인의 비유(生盲人喻)가 그것인데, 산스크리트 본(梵本)과 <품법화경(法華經)>에는 있다.

이 누락되어 알려지지 않은 세 가지의 비유 가운데, 해와 달 비유와 특히 <법화> 만드는 사람의 비유를 소개할까 한다.

“카사파(迦舍), 여래는 사람들의 지도자로서 불공명하지 않다. 마치 해와 달빛이 모든 세상을 비추듯, 좋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또는 위에 있는 사람이나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방향(傍向)을 내뿜는 사람이나 외척을 내뿜는 사람을 불문하고, 어떠한 곳

“이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카사파여, 마치 도공이 같은 점토로 여러 가지의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경우, 어떤 것은 설탕 그릇이 되고, 어떤 것은 요구르트 그릇이 되며, 어떤 것은 버터(乳酪) 혹은 우유의 그릇으로 되고, 또 조약 한 것은 오물을 담는 그릇이 된다. 이와 같이 사용되는 점토에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담는 물건에 따라서 그릇의 종류가 구별될 따름이다. 참으로 이와 같이 오직 하나의 탈것인 부처님의 탈 것만이 있을 뿐, 제2의 탈것도, 제3의 탈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을 들은 장로 마하 카사파는 세존에게 이와 같이 말씀

## 깨달음의 경지는 오직 ‘하나’

용도 따르는 그릇처럼 의욕이 인간 구별

에서나 한결같이 비취 열력이 없는 것과 같다. 참으로 이와 같이 완전히 깨달음에 도달한 여래가 놓는 부처님의 지혜와 의지의 광명은 다섯 갈래의 운명을 더듬어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빛나고, 바른 가르침은 각각의 의향(意向)에 따라서 위대한 탈 것(善乘)이나 특각의 탈 것(獨覺乘)이나 성문의 탈 것(聲聞乘) 등을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 공평하게 가르쳐 준다. 또 여래의 지혜 광명은 과부족이 없어 그 결과 모든 사람은 복덕과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런 경우 카사파여, 세 가지 탈 것 즉 세 가지의 가르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모든 사람이 따로따로 행동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까닭에 세 가지의 가르침(三乘)이 생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자 장로 마하 카사파는 세존에게 다음과 같이 여쭙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세 가지의 탈 것이 없다면 어찌하여 현재 성문이라든가, 특각이라든가, 보살이라든가 말이 있는 것입니까?”

드렸다.

“세존이시여, 만일 여러 가지의 의향을 가진 사람들이 3계에서 벗어났다고 하면 그들에게 오직 하나인 깨달음의 경지가 있는 것입니까, 둘 혹은 세 가지의 깨달음의 경지가 있는 것입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가르침이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깨달음의 경지는 열리는 것이다. 따라서 오직 하나인 깨달음의 경지가 있을 뿐, 둘 혹은 셋은 없다.”

이에 대한 계승이 있다.

“도공이 도기를 만들 적에 똑같은 흙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설탕이나 우유나 요구르트나 물 등의 그릇이 되는 것같이, 어떤 것은 오물의 그릇이 되고, 어떤 것은 버터 그릇이 되지만, 도공은 똑같은 점토를 가지고 갖가지 그릇을 만든다.

어떤 물건의 그릇이 되는가는 담는 물건에 따라 정해진다.

“이와 같이 세상의 인간에게는 차별이 없지만, 여래는 그들의 의욕에 따라 인간을 구별하는 것이다.”

우리가 매순간 마주치는 경계는 내 뜻에 좌우되어 있어서 아



그림 · 문병성

## 부분과 전체는 유기적 순환

이시우 박사가 쓰는 불교와 우주 ⑫ 이점과 연접

우주 내에 한 물체를 가져다 놓는다 하자. 그러면 이 물체가 다른 물체에 미치는 인력의 범위는 우주 공간 전체에 걸쳐 된다. 이를 중력장(重力場)이라 하며, 가까이 있는 물체는 큰 인력을 받고, 멀리 있는 물체는 인력이 약한 인력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주 내에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 간에 인력을 미치는 중력장 내에 존재하고, 물체들이 움직이기에 따라 중력장 내에서 힘의 분포가 바뀐다.

수많은 별들이 모인 성단이나 은하의 별들 사이의 인력으로 형성되는 일반 중력장을 가진다. 이것은 마치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마련되는 제도적 장치와 같은 것이다. 개인이 사회제도에 따라 생활을 영위하는 것처럼 별들도 일반 중력장의 영향 하에서 개별적인 역할적 진화를 이어간다.

이때 별들이 서로 가까이 지나면서 미치는 국지적 인력의 섭동이 별의 실질적인 진화를 이끌어 간다. 두 별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들 사이에 미치는 인력의 영향이 매우 적어 서로 독립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때 이들은 떨어져 있는 이점(離接)관계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서로 큰 인력의 섭동을 미쳐 원래 운동 방향과 속력을 변화시키는 상호 연관된 연접(連接)관계가 된다. 이처럼 성단 내에서 별들이 서로 간에 인력을 주고받는 연접관계를 지나면서 별들이 초기에 지니고 있던 운동학적 고유 특성이 사라지고 대신에 성단 전체의 특성이 형성된다. 그러면 각 별의 특성은 성단의 특성에 의해 규정된다. 다시 말하면 유기적인 부분들(다자)이 전체의 특성(일자)을 규정하고 전체는 부분의 특성을 규정하며, 동시에 부분의 변화는 연접관계를 통해 새로운 전체적 특성을 형성해 간다. 이처럼 부분과 전체는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역동적인 순환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안정된 상태로 이행해 가는 것이 자연의 조화이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자. 지구를 비롯해 모든 행성들은 일정한 주기로 태양 주위를 돈다. 이러한 주기적 운동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를 차지하는 태양의 강한 인력에

의해 규정되는 일반 중력장에 기인한다. 지구는 이러한 일반 중력장 내에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지만 가까이 있는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등의 여러 행성들로부터 계속 섭동을 받는 연접관계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지구의 운동학적 특성이 조금씩 변화가 되어 10만년 주기로 태양 주위를 도는 타원궤도의 모양이 원에 가깝게 둥글다가 또 럭비공처럼 길쭉하게 변한다. 궤도가 길쭉해질수록 지구-태양이 가장 가까워지는 근일점 거리는 더 줄어들고, 반면에 지구-태양이 가장 멀리 떨어지는 원일점 거리는 더욱 늘어났다. 지구 북반구의 겨울철은 지구가 태양에 가장 가까운 근일점 부근을 지날 때며, 여름철은 태양에서 가장 먼 원일점 부근을 지날 때다. 만약 지구궤도가 아주 길쭉한 타원궤도가 되면 북반구의 겨울철은 좀더 따뜻해지지만 반대로 여름철은 더 덥게 된다. 그래서 겨울철에 눈이 많이 쌓이고 땅이나 강이 얼게 되면 이들이 여름철에 잘 녹지 않게 되며, 동시에 얼음과 눈이 햇빛이 많이 반사되어 지구 밖으로 나가므로 지상의 온도는 더욱 떨어지게 되고 이 결과 빙하기가 닥치게 된다. 결국 10만년 주기로 지상에 빙하기가 닥치는

원인은 곧 외부 행성들의 연접적 섭동에 기인한다. 이 예에서 보듯이 지구는 일반 중력장에 묶여 태양 주위를 돌고 있지만 지구의 실질적인 운동학적 진화는 외부 행성들의 섭동에 의한 연접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각각의 행동과 사고방식은 기본적인 가정이라는 일반 중력장에 의해 형성된다. 그러나 집밖에 나오면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며 또 물질적인 주고받음의 연접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실질적인 행동 양식이나 사유 방식은 외부와의 유기적인 연접관계에 의해 점차 변화하며, 이것의 누적된 효과가 가정이란 규범에 의해 규정되는 것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것은 가정의 틀을 벗어나 가정의 다른 구성원들과 이점관계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연접관계가 불발에서는 인연관계이다. 이것을 인간관계에서 잘 나타내 주는 것이 12연기 사상이며, 그 시발점은 무명이다. 무명은 지혜를 뜻하는 명(明)이 없음을 뜻한다. 황백단체 선사(“무명이란 바로 모든 부처들께서 도를 얻으신 자리이다. 그러므로 연기법이 바로 도량이다”)라고 했는데, 이 연기법이 곧 유기적이고 연접적인 상의적 수순관계이다.

집밖 나서면 가족과 이점상태 외부와 바로 연접관계 갖게 돼 12연기는 상의적 인연관계

●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 이렇게 들었다

#### 국토·중생은 평등하다

노동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칭)'를 도입키로 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외국인인의 취업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새 제도에 의해 고용되는 외국인 근로자수는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1~1.5%(20만~30만명) 수준에서 억제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의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와 별도로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직접 뽑아 쓸 수 있게 돼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신분이 연수생이 아닌 근로자로 바뀌어 임금, 복지 면에서 국내인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고, 불법체류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아주 노동자들은 한국의 불합리한 제도와 인권정책 부재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아왔다. 이 제도 도입을 계기로 정부와 고용주는 경제적 특성과 함께 선진 인권의식을 높여, 나라와 피부에 따라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아관적인 모습에서 탈피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토의 평등이 중생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으며, 중생의 평등이 국토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는다. <혜경>

●마땅히 법으로써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또 마땅히 법으로써 보호해 살피라. 그리고 모든 관리 및 모든 백성, 사문, 바라문을 가르쳐 경계하라. 믿음으로는 금수에 이르기까지 다 마땅히 보호해 보살피라 한다. <전륜성왕수행경>

●일체의 국토가 허공과 같으므로... 나는 이렇게 일체의 세계가 같고, 일체의 중생이 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청정비나방광경>

●네 가지 계급(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으로 그 사람의 우열을 규정할 수 없다. 모두 다 똑같은 사람이다. 무릇 네 종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든지 비구가 되고 아라한이 되어 모든 번뇌가 없어진 사람을 가장 뛰어난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항>

###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부도(Pudo), 탑(Pagoda), 재가불자(Lay People)

Within the confines of the temple compound there are many different buildings. But in between there are Pudo, Pagoda regarding as special objects to that temple. Lay people must stop in on their way to Pudo and Pagoda to pay respects. 사찰 경내에는 다양한 건축물들이 있다. 이 중에서 그 사찰의 특징적인 것으로 부도와 탑을 들 수 있다. 재가불자들은 부도와 탑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예를 올리려 한다.

부도는 고승의 사리를 안치한 묘탑이다(pudo, stone monuments to famous monks, sometimes have the san of the monk). 부도는 사찰 경내 어느 곳에서나 찾을 수 있는데, 사찰의 앞이나 뒤는 곳이나 설치할 수 있다(pudo can be built in front, behind, or to the side of a temple complex).

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만든 기념물이다(pagoda is usually monuments to great buddha and enshrine their ashes or calcified remains). 사리는 화장 후 석회화 된 유골 조각으로, 불자들의 경배 대상이다. the san is small stone-like calcified relics left after cremation. It's much respected by Buddhist.

사찰은 불자들이 수행을 위해 찾는 곳(the main place that most buddhist go in order to do some serious practice)이다. 이때 불자를 'buddhist'라고 했는데, 'lay people' 즉 재가불자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하다.

## 禪과 21세기

“평소에 도(道)를 배우려면 거슬리고 순조로운 경계를 모두 받아들이고 이용해야 합니다. 거슬리고 순조로운 경계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고뇌를 일으킨다면 평소에 이 도 가운데서 마음을 사용한 적이 없는 것과 꼭 같습니다. 조사(祖師)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되는 경계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 좋고 나쁨은 마음에서 일어나니, 만약 마음이 억지로 이 몸을 붙이지 않는다면 허망한 정(情)이 어디에서 일어나리요? 허망한 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참 마음이 자재하게 두루 깨달아 알 것이다.”

청컨대 거슬리고 순조로운 경계 속에서 늘 이렇게 관찰하십시오. 오래 오래 하다보면 저절로 고뇌를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고뇌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마왕을 몰아붙여서 법을 지키는 착한 신(神)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순간 마주치는 경계는 내 뜻에 좌우되어 있어서 아

## ‘서장’ 통한 선 공부 ⑮

영시랑(榮侍郎)에 대한 답서 (2)



김태완 부산대 강사·철학

무런 힘이 들지 않는 순조로운 경계가 있는가 하면, 내 뜻과는 맞지 않아서 대하기가 매우 힘이 드는 거슬리는 경계가 있다. 우리는 순조로운 경계에는 쉽사리 적응하여 저항 없이 받아들여 사용하지만, 거슬리는 경계에는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거부하거나 여러 가지로 헤아려서 적응할

도 없고 완벽하게 버릴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순조롭고 거슬림이 경계에 있는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경계에는 순조롭고 거슬림이 없다. 순조롭고 거슬림은 경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선택하는 마

## 인연의 경계엔 좋고 나쁨이 없다

을 찾는다. 그러나 순조로운 경계에 쉽게 적응하는 것이나 거슬리는 경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은 둘 다 공부인에게는 함정이 될 수 있다. 순조로운 경계에 쉽게 적응할 때에는 도를 잃고 경계를 따라가기 쉬운 위험이 있고, 거슬리는 경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헤아릴 때에도 역시 도를 잃고 취사선택에 떨어질 위험이 있다. 취사선택에 떨어지면 곧 불만족이라는 고뇌가 기다리고 있다. 완벽하게 취할 수 있는 것

음에 있다. 그래서 동일한 경계가 때로는 순조롭기도 하고 때로는 거슬리기도 하는 것이다. 허망함과 올바른 것은 늘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이지, 경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울 바르면 경계도 울바르고 마음이 허망하면 경계도 허망하게 된다. 속아도 마음이 스스로 속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선택하는 마

음이 스스로 가지는 것이다. 도에서 바른 견치를 얻으면 거슬리는 경계든 순조로운 경계든 모두 받아서 사용한다. 그러나 이 말은 거슬리는 경계든 순조로운 경계든 무차별하게 수용한다는 말은 아니다. 무차별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이미 모양을 따라 분별하고 차별한 경계이다. 순조로운 경계와 거슬리는 경계에 반응함이 모양으로 는 반드시 같을 수가 없는 것이다. 반응이란 늘 상대적이어서 인연에 알맞게 이루어지기 때문

이다. 그러나 아무리 다양한 인연과 다양한 경계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반응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양에만 얽매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양한 반응은 한결같이 다름이 없다. 순조로운 경계에 순조롭게 반응하는 것과 거슬리는 경계에 거슬리게 반응하는 것이 모양으로 보면 다르게 분별되지만, 반응하는 그 행위는 동일한 것이다. 그 동일한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올바른 견치(見智)에 따른 지견(智見)이다. 제상(諸相=色)의 입장에서 는 모두가 다르지만, 비상(非相=空)의 입장은 모두가 다르지 않은 것이다. 어떤 인연이나 어떤 경계를 대하여 반응하더라도, 이 다르지 않은 자리에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를 배운 공덕이다. 지금 모든 경계가 제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모든 인연이 제각기 달리 대응해 온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나타남과 대응함이 바로 차별 없는 도의 존재를 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왜 그러할까? 순바닥으로 반응 하든 손등으로 반응하든 모두가 손의 반응이다. http://www.mindfree.net/

# 간(肝)이

## 간지방간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덩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깨끗한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고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다슬기 육질이 녹을때까지 4시간을 다룬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7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명숙에 묻어온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3박 8~9일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를 토종 (민속농원)